

# 전동보장구 사고 빈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 순천시 80대 전동차 운전자 추락사 광산구·장성서 승용차 추돌 사고 광주·전남 고령자 교통사고 빈번 “안전장치 마련·운전자 교육 필요”

광주·전남지역에서 노인 전동휠체어 탑승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인들에게는 전동보장구가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순천소방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순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80대 남성 A씨가 강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당시 주변에서 산책을 하던 행인에 의해 구조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5시56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여성 B씨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운전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주행하던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오후 2시48분께 장성군 황룡면의 한 도로에서는 D(85)씨가 몰던 전동휠체어와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D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앞서가던 전동휠체어를 보지 못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전동보장구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이 적용되면서 전동휠체어는 결음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보급됐다.

전동보장구의 경우 전동킥보드와 달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면허증도 필요 없고 교통법규나 안전운전 상식, 전동보장구 점검법 등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으며 심지어 안전장치 설치 의무도 없다.

보행자는 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인도가 많은 탓에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실제 도로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휠체어의 경우 최고속도 시속 15km를 넘지 않아 비교적 느린데다 폭이 커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

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매년 고령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1039건, 2022년 1193건, 2023년 115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남도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2355건, 2022년 2216건, 2023년 2385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는 “화물차량이나 SUV의 경우 차체가 높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전동휠체어에 조명을 설치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에게 인도 주행을 교육하는 한편 인도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삼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청년챌린지마켓 전남대 학생들과 시민들이 26일 전남대 후문 스포츠센터 인근에서 광주 북구청과 전남대 주최로 열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청년챌린지마켓에서 수제 간식과 공예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민현기 기자

## 사고 차량서 50대 부부 흥기에 찢린 채 발견

광주의 한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단독사고를 낸 50대 부부가 차량에서 흥기에 찢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3분께 광주 광산구 동광산 톨게이트(무안방면)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2차선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에서는 운전자 50대 중반 여성 A씨와 동승자 50대 후반 남성 B씨가 흥기에 찢린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고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내부에서 흥기 1점이 발견됐으나 외부 침입 등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정삼아 기자



## 여중생 제자 때린 운동부 코치, 항소심도 벌금형

### 소년체전 앞두고 지도과정서 19차례 걸쳐 12명 폭언·폭력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잘못된 자세 교정을 이유로 폭언·폭력을 일삼은 펜싱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펜싱부 코치 A

씨(4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전남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19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 12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전국소년체전 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이 훈련 도중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펜싱 칼 등을 휘둘러 때리고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을 하거나 욕설을 일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았고, 회수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훈련지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